

연중 제28주일

기도서 454 면(A해)

제1독서: 이 사 25,6-10a

제2독서: 필 립 4,12-14. 19-20

복 음: 마 태 22,1-14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 강론



##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죽는다”

강 덕 령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를 어느 임금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 잔치는 두 번 초대한다. 한 번은 잔치가 크기 때문에 시일을 확정하지 않고 먼저 초대한다. 두 번째는 잔치가 완전히 준비되면 다시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 비유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두 번이나 청함을 받고 거절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느님이 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셨고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또 청했으나 유대인들은 두 번이나 무시하였다. 그 결과 하느님의 청하심을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죄인들과 이방인에게로 갔다. 하느님은 이 모욕적 거절에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

둘째는 ①하느님의 잔치 초청은 혼인 잔치 같은 기쁨 잔치에의 초청이다. 그 초대를 거절하는 자는 그 기쁨을 가지지 못한다. ②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밭으로 일하러 가고 상점으로 나간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세상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며, 보이는 일에 열심하여 보이지 않는 일에 무성의한 것이다. ③예수님의 호소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보다 무엇을 잃을까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받는 벌보다 혼인 잔치의 기쁨을 잃은 것이 비극이다. ④하느님의 초청은 은혜의 초청이다. 큰 길과 옆길에서 불리어 온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왕의 관대한 초대였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끝없는 생명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부르심을 거절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절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고, 비극이기 때문이다.

복음에서 혼인 예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다 불러들인 것은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은혜이다. 하느님의 은혜는 은사이며 책임이다. 문이 열린 것은 죄인이 들어와 죄인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이 비유는 하느님께 어떤 옷을 입고 하느님 성전에 나가느냐가 아니고 어떤 정신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 성전에 나올 때 참회의 옷, 믿음의 옷, 하느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릴 깨끗한 영혼의 옷, 새 선행의 옷, 용서의 옷, 사랑 실천의 옷을 입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참된 기쁨을 얻어 누립니다. (영등동 주임신부)



## 보기에 좋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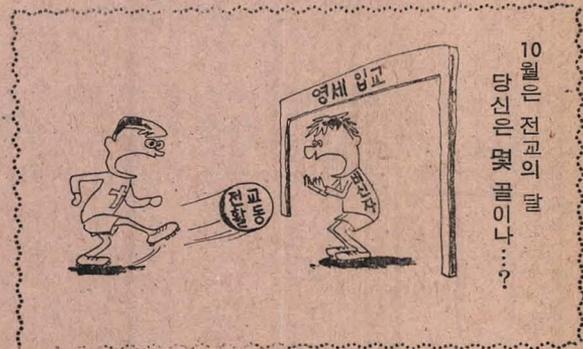
지난 주일 전주 해성학교(숲정) 운동장에서는 제1지구(全州·完州)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체육대회가 있었다. 순교성지여서 장소도 좋았고, 참가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 또한 보기에 좋았다. 이러한 잔치마당은 더욱 연구되고 개발되어 모든 교우들이 어린이들과 더불어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마저 든다.

무슨 모임이나 행사에는 참여도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그 목적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나 행사에는 그 참여도가 어찌 그렇게도 부족한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행사를 주관하는 쪽의 추진 방법이 나빠서인가, 아니면 참가해야 할 사람들의 성의가 부족해서인가?

관중을 우롱했다서 말썽이 있었던 프로 야구가 수입면에서 째짤한 재미를 보았다. 관중들은 왜 그리도 많이 물렸는가? 국민을 우롱한 팀이 지기를 바라서였는가 아니면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가? 이러나 저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흥미롭다는 것일 것이다. 신앙생활을 흥미분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그 진행 방법은 참가자들의 갈망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항상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지난번의 어린이 체육대회에는 참가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부모들 나름대로의 일꺼리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잔치마당에 관심을 보인 부모들이 너무나 적었다. 사도회에서 보여준 관심도 문제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승부보다는 참가에 더 역점을 두었으면 싶다. 함께 모여서 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어린이처럼 즐겁게 지내는 체육대회(?)에 하느님께서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 숲 정 이 산책



□노동관계법 개정 서명운동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한다(IV)

2) 행정관청의 개입이 축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날자와 시간, 장소, 참가인원 및 방법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행정관청은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동쟁의에 대한 적법심사를 하며(제16조 제2항)

—신고한 날로부터 일반사업의 경우 30일, 공익사업의 경우 40일의 생각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제14조)

—생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로부터 20일간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제31조).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제40조), 긴급조정이 결정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제41조)

—행정관청이 중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제39조).

이렇듯 노동쟁의의 신고에서부터 알선, 조사, 긴급조정까지는 행정관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고 중재, 조정등에 있어서도 사실상 행정관청이 개입하고 있다. 물론 쟁의행위는 실효행사를 수반하고 있어서 해당 기업과 사회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질서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행정관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행정관청의 개입이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제도화시켰다고 할 정도로 지나쳐서 노동자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유효하게 행사되기 위해서 이러한 법령들은 행정관청의 개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교리 해설

마리아 공경

사람들이 천주교회를 마리아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로사리오 성월을 지내면서 성모님께 대한 교리를 바르게 알고록 하자

예수님이 사시던 곳과 활동하시던 곳을 성지(聖地)라 한다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를 성모(聖母)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수만리 먼 나라를 순례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를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역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서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은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깊은 겸손을 지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단순하고 완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을 수락했고, 온 인류에게 인강이신 예수님을 낳아주셨다. 마리아의 생애는 침묵 속으로 숨겨졌지만 인간을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음을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요한 2,1~12; 사도 2,13~14).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을 낳으신 어머니도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직접 무엇을 해달라고 청하지만 마리아께는 우리의 함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느님께 전구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께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한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천주교회를 '마리아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잘못된 견해이다.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2천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계속되어온 아름다운 전통이다. 또한 마리아께 대한 공경 때문에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와 흠숭이 부추였던 적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마리아를 공경함으로써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집 안에, 그리고 당신의 나라 안에 평화를 원한다면, 저녁마다 묵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한 곳에 모이십시오."

(1883. 12. 24. 교황 비오 9세의 교서에서)

♣ 10월 21일은 전교주일

선교의 사명은 모든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힘껏 자기 처지에서 선교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전교회」에 가입하여 간접적으로 선교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 ① 성인 전교회비 : 보통회원 매년 500원  
특별회원 매년 2,000원
- ② 어린이 전교회비 : 매년 100원

**숲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기과, 병리검사

원장 전문의 최 창 기(루카)  
: 임상병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임 윤 자

☎ ③1719, ⑦0616 (원장실)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동편 2층)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센타**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  
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 훈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류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튼지 |

**서울주단**  
☎ ③0453 ⑤05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교황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가르침

한국의 친애하는 벗들이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마음 안에서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업근로자, 농민, 어민이 이 나라의 그리스도교인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목자들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의 중대한 숙제를 의미합니다. '나자렛'의 목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가르침이 노동하는 남녀의 육과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회망을 받쳐주고 여러분의 근심을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와 함께, 평화롭고 멋진 방법으로 계속 인간 존엄을 찾고 인권을 촉진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세계를 이룩하십시오. (84. 5. 5. 농어민과의 만남에서)

□ 농민 신앙대회에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농촌입니다. 농촌 생활은 날로 어려워져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농으로 인하여 농촌교회 또한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구에서는 농촌 신자들에게 삶의 의욕과 용기를 주고, 도시 신자들도 농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러내 살아가 줄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민 신앙대회를 개최하오니 교구내 모든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 소 : 전주 해성학교 운동장

☆대회주제 : 사랑으로 하나 되자

☆행사일정 및 행사개요

1. 미사(제1부) : 교구 사제단의 공동집전 미사로서 농촌에서 1년 동안 땀흘려 가꾼 농산물이 봉헌되고 농민으로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농민의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2. 농민대회(제2부) : 농민과 소비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농민은 농민으로서의 바램이 발표되고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농민들에게 바램을 발표하여 도시와 농촌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3. 축제(제3부)
  - 1) 잔치 : 농촌에서는 떡을 준비하고 도시에서는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참가자 모두가 함께 나누며 즐기는 판이 형성됩니다.
  - 2) 마당굿 : 미사를 주제로 하는 마당굿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는 판이 될 것입니다.
  - 3) 함께 노는 마당 : 농촌에서 5팀의 농악대가 함께 출연하며, 벗짚 2트럭을 사용하여 만든 고싸움 놀이가 참가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4. 특별행사(농산물 시장 개장) : 보다 공해없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시장을 열게 됩니다. 또한 성인탄생 경축대회를 전후하여 수집한 덜 필요한 물품 바자회도 실시합니다.

☆참가대상 : 교구내 신자 및 농민들.

☆주 최 : 천주교 전주교구 ☆주관 : 천주교 전주교구 농민사목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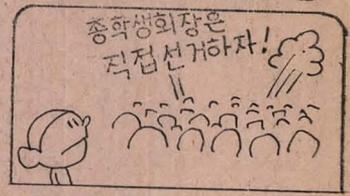
□ 10월 성소자 모임

주제 : 소명과 응답의 생활 일시 : 10월 28일 오후 1시30분

대상 : 성소모임 회원 및 성소에 관심이 있는 남자 분

장소 : 가톨릭 센터 3층 주최 : 교육국

요심이(584) 감동요



**직원 모집 공고**  
 모집인원 : 0명(여)  
 자격 : 18세~21세미만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고졸 이상의 여성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기타는 합격후 추가함)  
 제출마감 : 84. 10. 18까지  
 전주 가톨릭 센터  
 관리국장 강인찬 신부

**축!결 혼**  
 송순순 [여사 차남  
 안 병 식(안드레아)  
 양규철(클레멘스)씨 3녀  
 양 성 자(엘리사벳)  
 주례 : 범 석 규 신부  
 일시 : 10. 21. (12시)  
 장소 : 전주 북자성당

**신부의집 (DRESS SALON.)**  
 [마춤 · 빌립 · 반찬 · 판매]

우체국  
**신부의 집**  
 갈 동서관통도로  
 서울신학은 객사

- 웨딩드레스
- 약혼복
- 연주복
- 신부화장
- 페백의상
- 부케
- 야외촬영서비스 (약세서리)

관동도로 서울신학은행 앞  
 대표 최영자 (헬레나)  
 ☎ 6-6951

**르네상스미용실**

디자인 컷, 속눈썹 파마  
 최신유행 파마로 여러분을 멋있게 가꾸어 드립니다.  
 전주시 중앙동 2가 50-4  
 ☎ 2-5177  
 이 유배(가타리나)

**메주 특약점**

메주 · 청국장 · 고추장 메주 · 맛장  
 대구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제품  
 이용하실 분은 전통성당(본당별로도 됨)으로 문의 바람  
 ☎ 2-3222  
 전통자모회

(4) **순 정 이**



1. 고 김 후상 신부님 1주기 미사: 20일 오전 11시, 장소-전주 중앙성당
  2. 이리·익산지역 「베소라 성서」 장소 변경: 20일 오후 7시30분, 장소-이리 창인동 성당, 장소-김 정원 신부(베소라 성서 전달)
  3. 사제 어머니 성지순례: 20일 오전 10시30분, 장소-전주 국군포지 집결, 지참물-묵주·성가책·도시락(각자 지참), 참가대상-전주교구 사제 어머니
  4. 장애자 모임 「하나회」 피정: 21일 오전 9시30분, 장소-센타 교육관
  5. 전주교구 울드레아: 28일, 장소-전주 해성고등학교 강당
- 축하 영명: 십자가의 성 바오로(19일)-김 준호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전화 ⑥1711~3

1. 병자봉성체: 16일
  2. 성모회: 21일 공식미사 후
  3. 9월반 영세자 모임: 금일 공식미사 후(강당에서)
  4. 사제피정: 22일~26일, 제주에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피정기간중 미사: 22일-미사없음, 23~25일-저녁 7시, 26일-10시30분(어머니미사)
  5. 유아세례: 11월 2일로 연기(사제 피정 관계로)
  6. 전교주일: 21일
  7. 꾸리아: 금일 오후 2시
  8. 홀인상당: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1달전에 본당신부님과 면담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091,048원 교무금: 715,50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이 철 우  
사도 회장 이 승 재  
전화 ⑥0969 주·사 ⑥7032

1. 신축기금 신입합시다: 유원식-1백만원, 김선화-50만원, 서옥순-40만원, 소정남-30만원, 신영애-15만원, 윤영애-12만원, 김순자·송연섭·서봉님·박순남·이병훈-각 10만원, 박복대·김성중·한봉님-각 5만원, 소계-3,120,000원, 누계-110,154,000원
  2. 인후아파트 성령세미나: 16일~19일까지, 장소-박중신·권이복 신부님·김보나 수녀님, 수강신청은 선교부에, 참가비-1천원
  3.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당의 간부님들 참석
  4. 본당의날 행사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공소 순회미사: 20일 저녁 8시, 황운공소
  6. 차주의 전례담당: 제1조 빠짐없이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491,080원 교무금: 258,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 불 희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도 회장 양 상 열  
전화 주부(3)2182 주임 신부 김 불 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투(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의 모임: 사도회 상임위원회-1시, L.M.꾸리아-2시, 청년회
  2. 만나회: 17일 오후 8시
  3. 예비자 교회반(목요일) 시간변경: 저녁 7시30분
  4. 본당의날 및 견진성사 안내(예고)
    1. 일시-11월 4일 오전 10시 오후 4시30분
    2. 참가대상-전신자 가족 및 예비자
    3. 행사개요(가족소풍과 운동회 결합)  
제1부-견진미사(새 영세자 전례 참여), 제2부-경축행사(가족 대잔치) ①농악·탈춤·현대무용 및 각 단체 장기자랑, ②동대항 청백전 및 계층별 친선게임 4. 상품 및 경품추첨(기증품 접수 바람)
  5. 금주 본당청소: 반석회·까리바사회(20일 오후 3시)
  6. 다음주 모임예고: 성모회·반석회·사도회
- 교무금: 1,163,500원 군인주일 헌금: 144,880원

**(복자)**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도 회장 김 성 원  
사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3. 애령회: 20일 오전 10시
4. 전교주일: 21일 특별헌금
5. 예비자 인도 안내: 매주일 공식미사 후, 매 수요일 오후 7시30분
6. 유아세례: 18일 저녁미사 후
7. 축하 결혼: 21일 12시, 복자성당  
신랑-안병석(안드레아), 신부-양성자(엘리사벳)  
28일 12시, 복자성당  
신랑-최민승, 신부-윤정수(누시아)

8. 가정방문: 16일, 새 영세자들
  9. 금주 성당청소: 월-평화의모후, 토-구세주의 모친
  10.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충원 ②은희영
- 지난주 봉헌금: 156,150원 교무금: 471,220원  
군인주일 헌금: 128,890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⑥2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성전 보수공사 헌금: 김낙균·김배근-각 30만원, 강기호·박형식-각 20만원, 박경환-40만원, 신영창·김수길·김상근-각 15만원, 익명-10만원, 이재주-10만원, 익명-30만원, 익명-20만원, 익명-10만원
  3. 예비신자 모집: 21일부터 등록바랍니다
  4. 보미사단 소풍: 21일 오전 7시 출발
  5. 성가연습: 매주 목·금토요일 오후 7시30분
  6. 감사: 주일학교 체육대회-성서연구팀(남) 3만원, 성심약국-2만원, 한크리스티나-1만원, 제대꽃대-한복선 1만원
  7. 차주전례: 해설-김광수·오정희  
독서-①김상근 ②한상철, 기도-사도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401,430원 교무금: 172,000원

**(숲정이)**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⑥9567 사도 회장 김 수 곽

1. 꾸리아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애령회: 조요셉 상가-3만원 회사
  3. 예비자 집중교리: 15일~19일 저녁 7시30분
  4. 전교주일: 다음주 특별헌금 있음
  5. 금주 평일미사: 16일·17일-미사 없음
  6. 금주전례: 해설-강원모, 기도·독서-이규철·이정숙  
차주전례: 해설-강원모, 기도·독서-김경주·김선숙
- 지난주 봉헌금: 163,290원 교무금: 424,600원

**(전동)**

주임 신부 김 치 삼  
보좌 신부 정 양 현  
전화 주부 ⑥5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사투 ⑥3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피미시움·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4. 200주년 기념사업에 관심과 관심을 가집니다  
추진위원장-김용옥, 부위원장-김광환·박순기  
이덕수-5만원, 이금옥-10만원, 전희생-20만원, 한규화-50만원, 김채봉-2만원, 윤희숙-3만원, 신은영-2만원, 최필지-5천원, 채기석-1만원, 유영준-3만원, 유덕성-1만원, 방우진-20만원, 김순녀-1만원, 임정원-1만원, 방미정-5천원, 김동철-2만원, 이재원-5만원, 태복례-5만원, 정창희-100만원, 정봉남-3만원, 손금이-1만원, 김복남-5만원, 김 수-5만원
- 지난주 봉헌금: 915,800원 군인주일금: 267,730원  
교무금: 344,000원

**(호자동)**

주임 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 교 성  
사투 2-0915

1. 자모회·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경·기도서·성가책: 미사때 꼭 지참 바람
  3. 고백성사: 주일-미사 시작전 20분, 평일-10분전
  4. 금주 성서연구: 레위기 20~27장
  5. 저녁미사 시간변경: 저녁 7시로
- 지난주 봉헌금: 200,000원 교무금: 228,000원  
특별 주일금: 172,580원